

LPGA 투어는 아시아·대양주가 대세

한·일·중·호주·태국 등 올해 32개 대회서 23개 우승 주최 기업·개최 코스도 막중... '성장 엔진' 평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9년 시즌은 '한국 잔치'로 끝났다. 150만달러라는 역대 최고액 우승 상금이 걸린 최종전에서 김세영(26)이 정상에 올랐고, 고진영(24)은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평균타수 1위를 모조리 휩쓸었다. 이정은(23)은 일찌감치 신인왕에 올랐다.

김세영은 CME 글로벌 레이스 챔피언을 차지했고, 고진영은 앞서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를 품에 안아 올해 LPGA투어에서 개인 타이틀은 모두 한국 선수 손에 떨어졌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대양주) 지역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하타오카 나사, 시부노 히나코, 스즈키 아이 등 일본 선수는 올해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3승을 합작했다. 호주 역시 해나 그린과 이민지를 앞세워 메이저대회 1승을 비롯해 3승을 했고 태국(재스민 수완나푸라), 중국(평산산)도 각각 1승씩 보냈다.

올해 32개 대회 중 23개 대회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선수가 우승했다. 5개 메이저대회 챔피언은 모두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에서 배출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선수 13명이 상금랭킹 20위 이내에 포진했다.

LPGA투어의 대세가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아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 셈이다.

선수뿐 아니다. LPGA투어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과 대회 개최 코스도 아시아·오세아니아 비중이 막대하다. 올해 치른 32개 대회 가운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기업이나 단체가 메인 타이틀 스폰서를 맡거나,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코스에서 열린 대회는 13개였다. 절반에 가깝다. 내년에는 33개 대회 가운데 14개로 비중이 더 커졌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시즌 초반 11개 대회 가운데 10개는 아시아나 호주에서 열리거나, 미국 땅에서 열리더라도 아시아 국가 기업이 주최한다.

기아클래식, ANA 인스퍼레이션, 롯데 챔피언십, 휴젤에어 프레미아 LA오픈, 메디힐 챔피언십으로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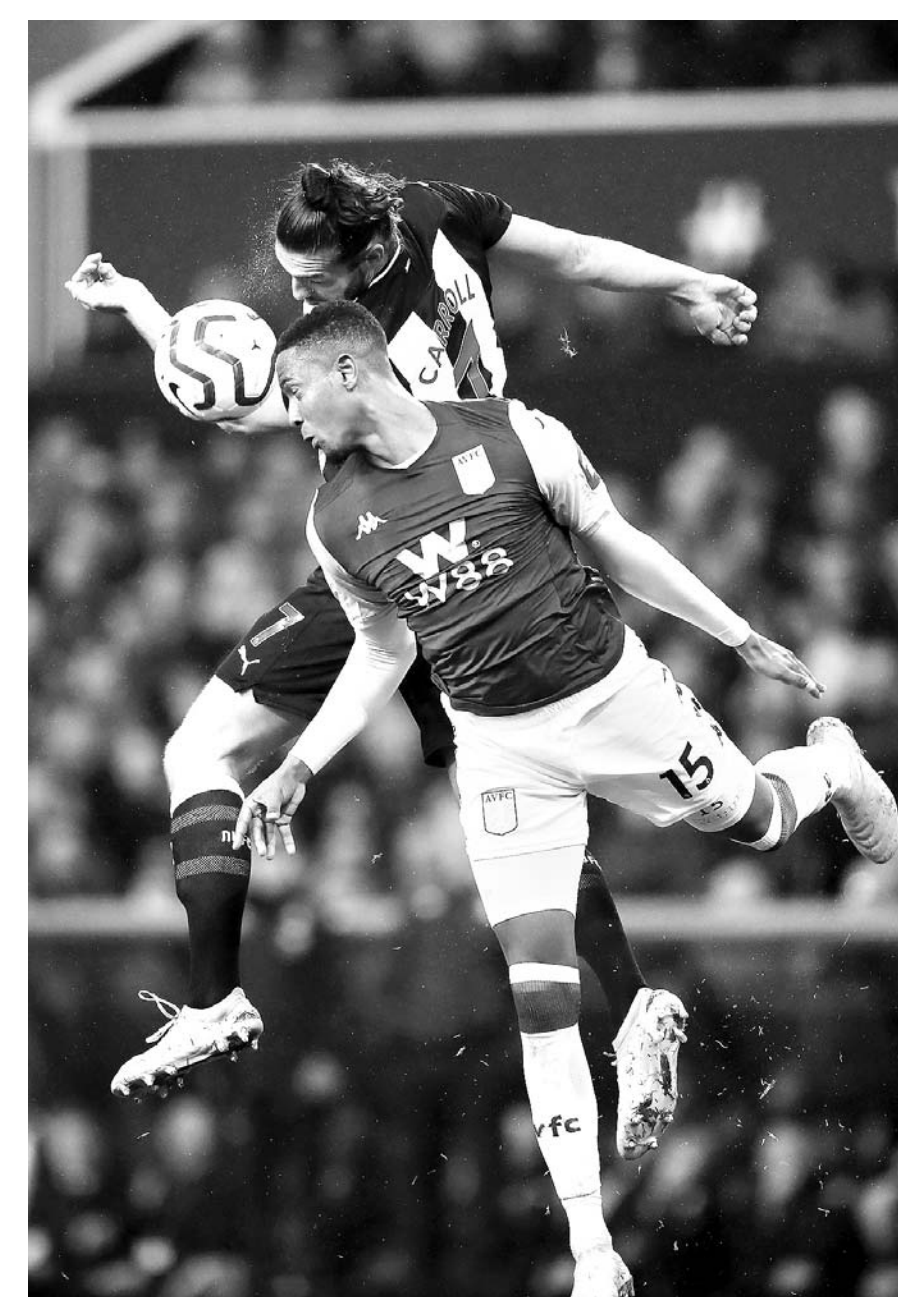
지는 미국 서부 시리즈는 아예 한국과 일본 기업이 도맡은 영국이다.

시즌 막판을 책임지는 아시아 시리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면서, 아시아 국가 기업 후원으로 치러진다.

LPGA투어가 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지역에 중점을 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0년부터 LPGA투어를 이끄는 마이크 완 커미셔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자 골프의 성장이 한계가 있거나, 성장해도 너무 더디다는 판단 아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진출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은 남자 프로 골프보다 여자 프로 골프의 인기가 높아 LPGA 투어의 아시아 진출은 LPGA 투어의 성장 엔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26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서 열린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뉴캐슬과 애스턴 빌라의 경기에서 뉴캐슬의 캐롤(7번)과 애스턴 빌라의 콘사(15번)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현 MLB 포스팅 절차... "메츠 관심"

美 현지 스포츠넷 뉴욕 보도

김광현(31·SK 와이번스·사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밟는다.

SK는 25일 KBO에 '포스팅 시스템 참가 공식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더 제출할 서류가 남아 있고, 서류 제출 후 KBO가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KBO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포스팅 요청 공문 등을 전달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를 공식화하면 2~3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김광현의 포스팅을 공식하면 30일 동안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SK가 김광현의 미국 진출 도전을 허락하면서,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꾸준히 김광현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26일에는 스포츠넷 뉴욕이 "뉴욕 메츠가 김광현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캔자스시티 로열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시카고 컵스도 김광현에게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츠는 2019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 제이컵 디그롬과 노아 신더가드, 마커스 스트로만, 스티브 마츠



로 이어지는 1~4선발을 갖췄다.

그러나 잭 웰치가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오면서 선발 한 자리가 비었다.

MLB닷컴 웹스차트에도 1~4선발만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넷 뉴욕은 "김광현은 견고한 5선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현은 올해 17승 6패 평균자책점 2.51로 활약했고,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시사했다.

SK는 김광현의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았고, FA 재취득까지는 2시즌이 더 필요하지만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허락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식'에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왼쪽부터),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헌액의 주인공 산악인 엄홍길, 배우 박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 스포츠 영웅 엄홍길 "인생 두 번째로 기쁜 날"

2019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선정된 산악인 엄홍길(59) 대장은 마치 어제 일인 듯 히말라야 16좌에 등정 한 그 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엄 대장은 2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영웅 헌액식에서 대한체육회 선정 역대 13번째 스포츠 영웅으로 이름을 올린 뒤 "16좌를 완등한 생애 최고의 순간 이후 두 번째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엄 대장은 "2007년 5월 31일 오후 6시 50분, 로체샤르에 올라 8000m급 이상 16좌를 모두 등정했다"며 "22년간 38번의 도전 끝에 이룬 완

등이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헌액식에서 먼저 간 동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수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엄 대장은 "38번의 도전에서 10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이들의 고귀한 희생과 노력, 그리고 주변의 등정 성공 기원 덕분에 16좌를 완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어 "산에 오를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란 말을 입에 늘 달고 살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못다 한 꿈을 함께 이루려고 노력했다"며 세계 최초 16좌 완등의 순간을 되짚었다.

엄 대장은 "실패하고 힘들 때마다 못 이겨내면 '내겐 정상은 없다'란 생각으로 살아왔다"며 "늘 이겨내야 한다는 정신으로 극복해냈다"고 삶의 철학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특집 KBS 뉴스 10: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야생야생(재) 11:40 KBS 뉴스특보 한·메콩 정상회담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동백꽃 필 무렵(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다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삼맛 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2 스페셜 11:45 헬로카봇 유니버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동명 유치원 9:15 마와와 공 10:00 자식의 기쁨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가 폴리 15:55 얼마 까투리 16:40 동등권 친구들 17:20 그림을 그려요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 20:00 마틸다 21:50 EBS 다크프라이밍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13:50 KBS 재능방송센터 (재) 14:00 KBS 뉴스 14:10 TV는 사랑을 싣고(재) 15:00 시니어 토크쇼 함금연못(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17:30 동물의 왕국	13: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반지의 비련일기 2 17:15 옛 내 친구는 빅파이프 17:30 강력추진 배틀 트립	12:00 12 MBC 뉴스 12:20 두 번은 없다(재) 13:20 MBC스포트 2019 동백꽃 국제천선 탁구 교류전 15:30 박스북 16:00 빠삭 메카드S 16:30 꾸러기 식스교실 17:00 5 MBC 뉴스 17:25 양코르 사라진 명작의 비밀	12:00 SBS 12 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2019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16:00 행복실제 일짜매기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태희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항해가 이만월입니다 12:00 CBS나눔클럽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널 집판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원경의 카스텔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5 특집 대담 한·아세안 새로운 30년 공동번영의 미래 23:5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유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살림하는 남자들 22:00 동백꽃 필 무렵 스페셜 22:35 동백꽃 필 무렵 스페셜 23:10 스탠드 업!	18:25 중국의 아이들 19:00 특색있고 학생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3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허지하는 인간들 21:30 허지하는 인간들 22:05 실화탐사대 1부 22:35 실화탐사대 2부 23:05 라디오스타	18: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19:00 클레 NOW 제주스페셜 19:30 행복추진 해피타임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경제발굴단 1부 21:30 영재발굴단 2부 22:00 시크릿 부티크 1부 22:40 시크릿 부티크 2부 23: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50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7:00 KCTV 뉴스 8:00 해라 양정점 8:30 환경토코소 기후변화연구소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10 알코르 KCTV 다크 15:10 글로벌 아카데미 18:00 해라 양정점 18:30 환경토코소 20:00 글로벌 아카데미 21:00 KCTV 종합뉴스 22:00 해라 양정점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27일

김종상 지단(해) 작명예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노력한 만큼의 즐거움과 이익이 온다. 48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 가라. 60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72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37년 거레나 계약관계로 소식이 찾아온다. 49년 목표가 있으면 추진, 직장인은 변동수가 생긴다. 61년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지시할 일이 있다. 73년 취업, 직장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며 미흡성은 결혼 상대자를 만난다. 85년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은 고민이 많이 있다.

38년 가정사 문제로 불화 또는 논쟁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중립을 유지. 50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 62년 직장이나 거래처에서의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하여 놀람이 있다. 74년 뜻하지 않은 희식이니 이성교제에 행운이 따른다. 86년 취업이나 진학의 기회가 있다. 최대한 활용하라.

39년 과거에 집착하면 우울해지고 권태가 온다. 51년 문서 관련 업무는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63년 계약건은 원활하게 성사되고, 자녀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75년 새로운 계획(장입)이 있다면 소신껏 추진하라. 87년 자격증이 도전하거나 미래 직업에 반영하는 일을 구상할 것.

40년 여유와 차분함이 필요하고 안정할 시기이다. 52년 하는 일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약속은 보류가 된다. 64년 상호협력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자주 만나 협의하고 논의하라. 76년 모험 또는 시기, 질투가 생기니 참견하는 일은 자제. 88년 새로운 변화나 미취업자는 취업, 직장인이 길하다.

41년 평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면 좋다. 53년 직장이나 사업장의 매출 이익과 생산 증대되며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65년 말이 많으면 구설이 오니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의 말에 경청이 필요할 때. 77년 이동, 변동이 따르고 분주하다. 89년 자존심을 앞세우면 이성교제에 불리.

42년 부부간에 시댁, 처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걱정이 생긴다. 54년 문서이동, 이사, 매매 등에서는 계약이 성사되고 이익이 따른다. 66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나 필요하다. 78년 취직을 하게 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 90년 행복의 시작은 건강에서 온다.

4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55년 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하니 주변 정리가 우선이다. 67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79년 친구, 동료의 만남이 있으며, 애정에 희소식이 있다. 91년 신용, 약속 또는 돈과 관계된 일로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4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전화를 할 것. 56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생긴다. 68년 최선을 다한 일에 결과가 있고, 나를 인정받게 해준다. 80년 부모나 윗사람과의 의견다툼으로 일이 지체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92년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강이 약해질 수 있다.

45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대인 관계를 적극 활용하라. 57년 재물 손실이 있으니 지갑 조심. 69년 얼굴에 손을 댈 일이 있거나 자녀 문제가 생기니 지출보다 저축이 필요하다. 81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찾아 보는 것이 좋다. 93년 문서 이동수가 있고 건강이 약해진다.

46년 도움에 의한 일지라니 직업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다. 58년 남의 일에 간섭하다 내가 일을 대신해주는 형국. 70년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약속이 생기면 중지하라. 82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는 적다. 94년 시련 속에 열매가 맺으니 가뭄이 충만되고 의욕이 상승한다.

47년 투자 시에는 신중함과 관찰력이 필요하다. 59년 인쟁이나 불화가 생기니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71년 타인의 배려가 간섭이나 억압으로 느낄 수 있다. 여유와 긍정적 사고가 필요. 83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미움을 사게 되니 행동은 조신하게 하라. 95년 시련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잘 마무리 해야 한다.